

사설

새 봄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비롯해 농정산림과의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등 고성군 각 부서 별로 일자리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지난해보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뽑고,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 적게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말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겨울 동안은 이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가, 봄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어 나가는데 자신은 일을 못하니 별별 생각이 다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각종 일자리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10년에는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분야에서 2,320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71억원을 투입해 1,1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예산이 40억원이 줄고, 일자리 숫자는 1,122명이 줄었다.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참여하지 못한 주민

어든 가장 큰 원인은 농정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공공산림)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숲가꾸기(공공산림) 60억여원, 숲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10억여원이었는데, 올해는 공공산림 부문이 폐지되고 대신 산림바이오매스에 10억원이 증액됐다. 숲가꾸기에서 50억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1회성 일자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점점 줄이고, 대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명언처럼, 몇 달 동안 적은 금액의 노임을 받는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져도 취업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이 ‘명언’은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후엔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놀리는 것밖에 안된다.

정부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한다면 자치단체인 고성군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주민들을 살피야 한다. 그것이 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 줄여 일자리 더 늘려야

들은 왜 자신이 뽑히지 못했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다. 또 지난해에 일자리를 못얻었지만 올해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주민들의 경우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끼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성군은 이처럼 올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 40억원이 줄

어든 대신 경제도시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군비 5억원 추가 투자 등으로 10억여원을 늘려 전체적으로 40억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각종 일자리 지원 예산을 크게 줄였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올해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예산이 줄었다는 설명도 나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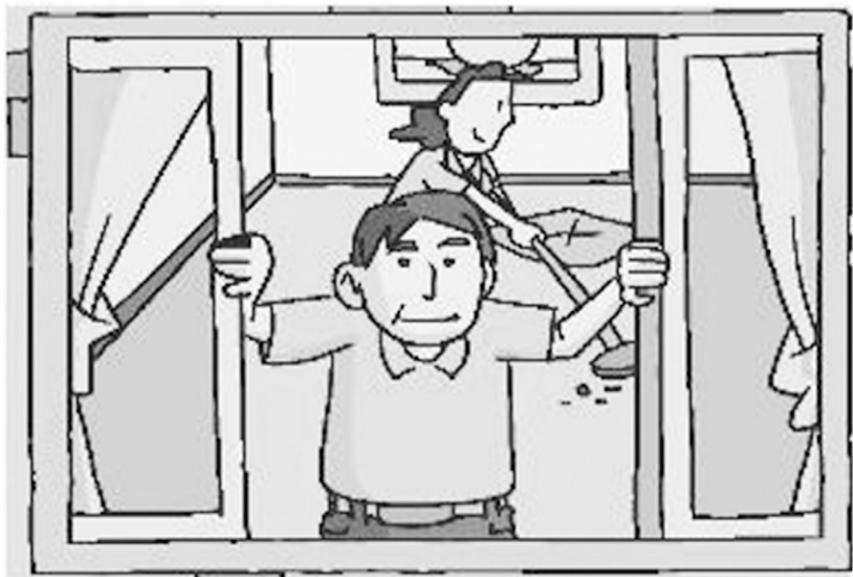


고성군보건소 제공 ‘황사대비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

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용 위생 용기 등 준비 △원재료 및 생산 제품 등의 야외 적재를 자제하고, 부득이 야외 적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황사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덮개(비닐 등) 등 준비 △제조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 경로 확인 및 예방조치 실시.

황사 발생 시 조치사항 △미 포장 식품의 황사 노출 차단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 포장 식품은 반드시 랩 또는 위생용기에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하여 황사오염 차단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밀폐(외부공기 유입 차단) △제조·가공 및 조리 등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류에 대하여 작업 전 세척 실시 △야외 적재된 식자재(원·부자재)가 황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덮개를 씌움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 확인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에 의한 2차 오염 방지 △재래시장 등 외부노출 판매식품은 랩 등을 씌워 판매하거나,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

황사가 지나간 후 조치사항 △제조·가공 및 조리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살균소독 후 세척 실시 △영업장 주변의 황사물질 청소 등 청결유지 △황사에 노출된 과일, 채소류 및 수산물 등은 충분히 세



척 △황사에 노출된 원·부자재 제조·조리장 반입 전 포장지 등에 묻어 있는 황사물질 제거 △황사에 노출되어 미생물 등에 오염된 것으로 우려되는 식품 중 오염물질 제거가 불가능한 제품 폐기 등 조치 △황사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기관에 신속 보고.

가정에서의 식품취급 요령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꼭 닫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반찬 등)은 뚜껑을

덮어 보관 △황사에 노출된 과일, 채소류 등은 살균소독 후 충분히 세척 후 조리·섭취 △식품 조리 또는 섭취 시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로 2차 오염 방지.

황사 발생확인 방법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기상청 홈페이지 수시 확인(황사센터)www.kma.go.kr △전화로 통한 확인. 기상청 02-2181-0669/ 02-2181-0670, 국번 없이 131(타지역 : 지역번호+131).

황사(Yellow sand, Asian dust)란 중국 북부 또는 몽골 등의 사막 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한다.

황사로 인한 오염우려 식품 △노상 등 야외에 노출되어 진열한 식품 또는 조리식품 △밀봉·포장 하지 않고 유통·판매되는 과일, 채소류 및 수산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과정 또는 종사자의 피복이나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 △노상 포장마차, 야외 조리 음식.

황사 예보 시 식품관리 요령 △황사특보(황사주의보 및 경보) 발령 사항 등에 주시 △종사자에게 황사 예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 △황사예보 발령 시 과일, 채소류 및 수산물 등 평소 미 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유통·판매업체에서 포장되지 아니한 식품은 랩 등으로 포장 △부득이

고 문득 타이타닉호가 떠올랐다. 역사는 타이타닉호 관계자들이 빙산에 부딪힌 사실을 가볍게 여긴 탓에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를 교훈삼아 수협의 포기결정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에서

0...1911년 4만톤급 이상 여객선의 시초를 기록한 타이타닉호는 영국 사우샘프턴항에서 뉴욕항으로 향하는 처녀항해 중, 부유하던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다.

러시아 냉동명태 직거래 사업이 고성군수협 사업포기라는 '암초'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